



제26회 한국전자전람회 분석

# 지구촌 하이테크 제품 경연장; 보다 편리하게, 보다 풍요롭게

제26회 한국전자전람회(Korea Electronics Show)가 '95.10.10~10.15일 까지 6일동안 KOEX에서 열렸다.

김영삼 대통령과 국내외 전자공업인, 일반관람객들이 대거 관람. 명실공히 국제전자전람회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한편 전자산업의 풍요로운 한마당이 되었다.

본고는 사상 최대규모, 최대실적을 올리며 대성황리에 6일간의 행사를 마무리 지으며 분석한 한국전자전 결과이다.

## 1. 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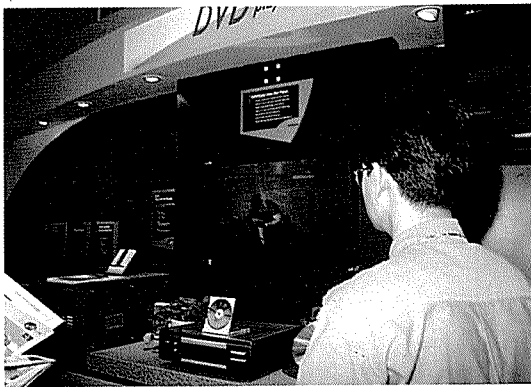
2000년대 첨단 전자산업국으로 향한 기반구축, 산업교역의 지속적인 신장과 전자산업의 국제화에 기여, 첨단 전자기술에 관한 정보교류를 통한 품질향상, 바이어들의 제품구매 선호에 따른 신제품 개발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한 한국전자전람회가 지난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동안 “보다 편리하고, 보다 풍요롭게”라는 주제를 내걸고 한국종합전시장(KOEX)본관에서 통상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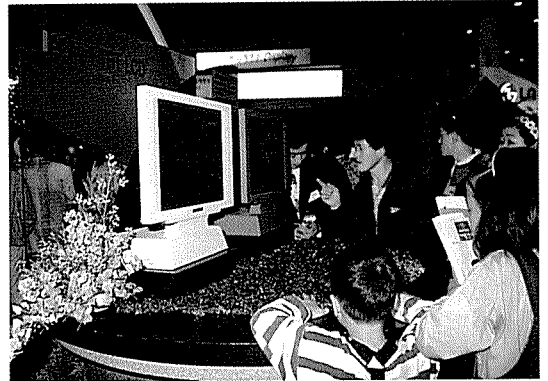
이번 전자전에 출품된 256M SDRAM



ATM 교환기를 관심있게 보고있는 관람객



DVD Player 시연장면



가장 얇은 22" 칼라 TFT-LCD

한국전자전의 연도별 개최개요

| 항목 \ 연도         | 1969년<br>제1회            | 1975년<br>제6회            | 1977년<br>제8회             | 1978년<br>제9회             | 1979년<br>제10회            | 1980년<br>제11회            | 1981년<br>제12회            | 1982년<br>제13회           | 1983년<br>제14회            |
|-----------------|-------------------------|-------------------------|--------------------------|--------------------------|--------------------------|--------------------------|--------------------------|-------------------------|--------------------------|
| 기간              | 11.8~<br>11.25<br>(8일간) | 10.8~<br>10.25<br>(8일간) | 10.18~<br>10.25<br>(8일간) | 10.11~<br>10.18<br>(8일간) | 10.25~<br>11.4<br>(10일간) | 10.7~<br>10.16<br>(10일간) | 10.14~<br>10.20<br>(7일간) | 10.29~<br>11.5<br>(8일간) | 10.11~<br>10.17<br>(7일간) |
| 장소              | 국립<br>공보관               | 장충공원<br>가건물             | 여의도<br>전시장               | 여의도<br>전시장               | 한국종합<br>전시장              | 한국종합<br>전시장              | 한국종합<br>전시장              | 한국종합<br>전시장별관           | 한국종합<br>전시장별관            |
| 규모 (坪)<br>(S/M) | 360<br>(1,118)          | 800<br>(2,640)          | 1,600<br>(5,280)         | 2,100<br>(6,930)         | 2,850<br>(9,045)         | 2,260<br>(7,475)         | 2,755<br>(9,100)         | 3,600<br>(11,880)       | 5,400<br>(17,820)        |
| 참가업체 (A)        | 3개국<br>78업체             | 5개국<br>152업체            | 7개국<br>206업체             | 8개국<br>228업체             | 11개국<br>257업체            | 9개국<br>214업체             | 12개국<br>229업체            | 12개국<br>280업체           | 12개국<br>330업체            |
| 국내업체            | 71                      | 115                     | 147                      | 149                      | 168                      | 165                      | 160                      | 196                     | 220                      |
| 외국업체 (B)        | 7                       | 19                      | 59                       | 79                       | 89                       | 49                       | 69                       | 84                      | 109                      |
| B / A (%)       | 9                       | 13                      | 29                       | 35                       | 35                       | 23                       | 30                       | 33                      | 33                       |
| 출품수 (點)         | 72종<br>20,600           | 321종<br>42,000          | 360종<br>40,000           | 403종<br>54,000           | 355종<br>57,000           | 365종<br>59,000           | 390종<br>63,370           | 403종<br>68,100          | 415종<br>72,600           |



김영삼 대통령께서 한국전자전에 출품된 첨단 전자제품을 관람하는 모습

| 1984년<br>제15회                     | 1985년<br>제16회                     | 1986년<br>제17회                     | 1987년<br>제18회                     | 1988년<br>제19회                     | 1989년<br>제20회                     | 1990년<br>제21회                     | 1991년<br>제22회                     | 1992년<br>제23회                     | 1993년<br>제24회                    | 1994년<br>제25회                     | 1995년<br>제26회                     |
|-----------------------------------|-----------------------------------|-----------------------------------|-----------------------------------|-----------------------------------|-----------------------------------|-----------------------------------|-----------------------------------|-----------------------------------|----------------------------------|-----------------------------------|-----------------------------------|
| 10.10~<br>10.14<br>(5일간)          | 10.18~<br>10.23<br>(6일간)          | 10.18~<br>10.13<br>(6일간)          | 10.15~<br>10.20<br>(6일간)          | 10.21~<br>10.26<br>(6일간)          | 10.7~<br>10.12<br>(6일간)           | 10.17~<br>10.22<br>(6일간)          | 10.17~<br>10.22<br>(6일간)          | 10.15~<br>10.20<br>(6일간)          | 10.9~<br>10.14<br>(6일간)          | 10.12~<br>10.17<br>(6일간)          | 10.10~<br>10.15<br>(6일간)          |
| 한국종합<br>전시장                       | 한국종합<br>전시장                       | 한국종합<br>전시장                       | 한국종합<br>전시장                       | 한국종합<br>전시장                       | 한국종합<br>전시장본관                     | 한국종합<br>전시장본관                     | 한국종합전시장<br>본관및별관                  | 한국종합전시장<br>본관및별관                  | 한국종합<br>전시장본관                    | 한국종합<br>전시장본관                     | 한국종합<br>전시장본관                     |
| 4,000<br>(13,200)                 | 4,600<br>(15,000)                 | 4,770<br>(15,760)                 | 4,770<br>(15,760)                 | 4,920<br>(16,230)                 | 6,284<br>(20,736)                 | 6,300<br>(21,000)                 | 8,550<br>(28,224)                 | 8,550<br>(28,224)                 | 6,284<br>(20,736)                | 6,272<br>(20,736)                 | 6,300<br>(20,740)                 |
| 14개국<br>380업체<br>210<br>170<br>45 | 14개국<br>445업체<br>244<br>201<br>45 | 15개국<br>460업체<br>262<br>198<br>43 | 15개국<br>465업체<br>246<br>201<br>43 | 18개국<br>475업체<br>272<br>203<br>43 | 15개국<br>475업체<br>292<br>228<br>44 | 19개국<br>520업체<br>314<br>211<br>40 | 19개국<br>573업체<br>335<br>238<br>42 | 16개국<br>530업체<br>335<br>195<br>37 | 17개국<br>45업체<br>317<br>133<br>42 | 18개국<br>420업체<br>300<br>120<br>38 | 18개국<br>421업체<br>266<br>155<br>58 |
| 420종<br>72,000                    | 430종<br>73,000                    | 430종<br>73,000                    | 440종<br>75,000                    | 450종<br>77,000                    | 460종<br>80,000                    | 475종<br>82,000                    | 480종<br>89,000                    | 485종<br>90,000                    | 470종<br>87,000                   | 450종<br>85,000                    | 480종<br>92,000                    |

업무 주최, 본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금년으로 스물여섯번째를 맞이한 한국전자전은 국내외 산업환경의 변화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국내외 전자공업인들과 해외 바이어 및 관련인사들은 물론 일반 관람객들까지 포함하여 총 26만명이 참관하여 세계적인 전자전의 명성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10월 10일 개막식에는 김영삼 대통령을 비롯하여 박재윤 통상산업부 장관, 정근모 과학기술처 장관, 박용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홍두표 한국방송공사 사장, 김영수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귀빈들과 본회 구자학 회장 등이 테이프 커팅을 거행하였다.

아울러 행정부·입법부·경제단체 등에서 200명, 업체대표 300명 등 많은 전자공업인 및 관련 유명인사들이 개막식에 참석하였다.

개막식 직후 김영삼 대통령을 비롯하여 각계의 귀빈들은 본회 구자학 회장의 전자전 개요 설명을 경청한 후 1층의 오디오/비디오 등 가전제품 전시관과 3층의 부품/소재, 통신/방송기기, 산업용기기 전시관과 외국제품 전시관 등을 차례로 관람하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관람하면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은 지속적인 기술개발에 있다면서 그동안의 전자업계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특히 이번 한국전자전은 국내외 전문가에 의한 멀티미디어 산업동향 및 기술전망에 대한 한·일 전자기술 합동세미나가 동시에 개최되어 양국의 기술개발 협력기반 구축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또한 국민들의 정보화사회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관람객을 대상으로 경품추첨 행사도 매일 개최하여 국산제품의 우수성 홍보를 극대화 하였다.

## 2. 출품동향

이번 한국전자전의 출품동향을 보면, 우선 규모면에서 18개국 421개 업체가 480종 92,000

점을 출품하였는데 외국기업체가 작년의 120개 업체에서 155개 업체로 대폭 늘어났다. 크게 나누어보면 첫째, 차세대 영상 미디어 등장품을 들 수 있다.

최근 전자업계의 이슈로 떠오르는 것은 가전분야에서의 디지털 혁명, 즉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DVD : Digital Video Disk)」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20세기 최후의 가전제품”으로 불리우고 있는 DVD는 일대 변혁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직경 12cm의 기존 CD 크기이지만 한면에 135분 분량의 영화 한편의 고선명 화상의 저장 가능성이 가능하고 반복 재생에도 화질의 손상이 전혀 없으며, 손쉬운 보관과 저렴한 비용으로 영상매체에서 컴퓨터 기록매체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는 양면으로 규격통일 합의를 이루었지만 동 DVD는 비디오 테이프, 레이저디스크, 비디오 CD 등을 대체할 수 있어 지금은 재생전용이지만 향후 기록도 가능해지면 현재의 VCR을 이어나갈 20세기 최후의 「수퍼 가전제품」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가전업계에서도 이에 대비하여 단면방식의 HD(High Density)와 양면방식의 SD(Super Density)형의 DVD 시제품을 각각 개발하였다. 이로써 세계 우수 가전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DVD 선두대열에 우리도 동참하게 되어 대등한 기술적 동반자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앞으로의 영상제품중 특이할 만한 제품으로는 「PDP(Plazma Display Panel) TV」를 들 수 있다.

멀티미디어 시대에 대응하는 얇고 가벼운 차세대 평판 디스플레이인 PDP를 채용한 동제품은 20"이상의 대형화면에 적합한 두께 10cm의 벽걸이형 TV로 장래가 촉망되는 제품이기도 하다.

또 다른 영상제품으로는 기존 TV(TVCR)와 비디오 CD의 통합제품이다.

기존 방식도 수신하고 동화상의 영화를 CD를 통해서 보고 온가족들이 노래방도 즐길 수 있는 제품이 「CD복합 TV(TVCR)」이다.

이번 전자전에서 영상의 큰 흐름은 16:9의 기존의 TV와는 스크린 비율이 다른 「와이드 TV」도 다수 출품되어 국내 TV시장의 와이드 TV 대중화를 예고하고 있다.

멀티미디어 제품으로는 퍼스널 컴퓨터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PC의 본체와 모니터, 스피커를 하나로 합친 「일체형 홈 PC」가 출품되었다.

동 제품은 별도의 주변기기를 장착하지 않고도 TV, 비디오 CD, 오디오 CD 등을 감상하는 것 외에도 통신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가정에서 업무는 물론 교육용으로까지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또 하나의 특이한 제품은 음성인식이 가능한 멀티미디어 PC의 출현이다. PC의 작동명령을 키보드나 마우스 대신 사람의 목소리로 실행이 가능한데 95% 이상의 음성인식 성공률로 1만 5,000개의 음성 명령어를 인식하여 기존의 제품과는 親인간적 멀티미디어 PC로서 기대를 하고 있다.

둘째, 2000년대 수출유망품 대거 출현으로 수출선도산업으로서의 지속적인 역할이 크게 기대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수출1위 산업으로 전자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총 수출의 34%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중에서도 C-TV, VCR, 오디오, 컴퓨터 주변기기, 냉장고, MWO 등 이른바 성숙단계의 제품은 수출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제품군의 뒤를 이어 부상하는 수출유망품이 바로 고집적 DRAM, TFT-LCD, 휴대폰, 노트북 PC 등을 꼽을 수 있다.

지난해 「256M DRAM」을 개발한 우리 전자업계는 현재 Giga급의 고집적 메모리반도체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어 조만간 그 결실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2의 반도체라고 일컫는 LCD중에서도 고성능의 「대형 TFT-LCD」가 14.2인치까지 개발되어 소형제품은 노트북 PC나 휴대용 정보기기에 사용되고 12인치 이상은 TV로의 채용도 가능하며 본격적인 벽걸이 TV로의 응용이 가능해져 수출가능성은 확대일로에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픽에서 동화상까지 지원되고 있어 멀티미디어제품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핵심부품이기도 하다.

지난해에도 폭발적인 수요팽창을 보였던 「휴대폰」은 금년에도 수요가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열기를 반영하듯 전자업계에서는 기존의 아날로그 휴대폰 시스템에의 대체방식인 CDMA(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의 「디지털 이동통신망 및 단말기」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 제품은 「이기종 시스템간 접속 프로토콜 국제규격」을 충족시키고 있어 타기종 접속이 가능하여 지리적 제약없이 서비스가 가능하다.

한편 이 제품은 향후 PCS 서비스에까지 확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차세대 수출유망품이다.

또 하나의 수출유망품은 휴대성이 강조된 「노트북 PC」이다. 기존의 데스크 탑형 PC는 이제 발자취를 감추어 가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노트북 PC의 수출에서의 관건은 다름아닌 디스플레이 즉, 액정표시 소자인 LCD이다. 바로 원가부담의 50% 이상에 육박하는 TFT-LCD의 확보가 노트북 PC의 시장지배와 직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노트북 PC 수출 가능성은 매우 밝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보듯이 향후 2000년에는 현재의 수출 주종품목들이 사라지고 새롭게 떠오르는 256M DRAM, 대형TFT-LCD, 휴대폰, 노트북 PC 등으로 대체되면서 우리나라 수출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이번 전자전을 통해 확인이 되고 있다.

셋째, 소비자 니즈에 부응한 親생활 가전제품

의 다수 출품으로 신규시장을 창출하려는 우리 업계의 노력이 크게 돋보였다.

기존의 가전제품에 새로운 기능의 편리함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니즈에 부응하는 親생활 가전제품이 다수 출품된 것도 이번 전자전의 특징 중의 하나이다.

영상기기에서는 「전화예약 녹화 VCR」이 그것이다. 외부에서 전화 버튼으로 즉시 녹화하거나 예약녹화가 가능한 제품이다. 전화기의 안내 음성순서에 따라 버튼만 누르면 텔리 레코드 모듈을 이용하여 녹화가 가능하다. 통신기술과 가전제품이 결합된 소비자의 편리성을 도모한 제품이다.

음향기기에서는 도시 속에 자연을 강조한 「자연음 오디오」로서 내장한 배경음이 바닷가/숲속/계곡 등의 3개 모드로 선택 가능하게 하여 도시생활 속에서 자연의 여유로움을 제공하여 정서순화에 큰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

이외의 생활 가전품으로는 「자연음 선풍기」, 「복합기능 세탁기」등이 있다. 자연음 선풍기는 바람의 세기에 따라 음향이 변환되는 기능이 추가되었다.

즉, 미풍시에는 새소리, 약풍일 때에는 파도소리가 들리고, 강풍에는 세찬 바람소리가 나와 시원함을 더해주는 親생활 가전제품이다. 또한 복합기능 세탁기도 그중의 하나인데 이는 세탁력을 높이고 절수를 하고 세제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세탁조 안에 빨래판과 세탁봉이 동시에 들어 있거나, 빨래판에 미니 날개를 3개더 부착하거나 또는 세탁과 건조를 하나의 세탁기에서 해주는 일체형 세탁기 등이 선보여 주부들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이한 것으로는 기존의 제품 개념을 바꾸어 놓은 새로운 발상의 제품들이다.

기존의 오디오는 대부분 세워 놓는 방식이었으나 발상을 새롭게 해 벽에 거는 「벽걸이 오디오」가 탄생하였다. 즉 고정관념의 탈피인 것이다. 공간도 넓게 쓸수 있고 벽에 걸어놓아 데코

레이션 효과도 보고 이중효과를 거두고 있다.

고정관념의 탈피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냉장고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기존의 제품은 냉동고가 위에 냉장고가 밑에 위치하여 자주 여닫는 현실에서는 인체의 허리를 많이 써야 했었는데 이를 거꾸로 위치시켜 놓은 「거꾸로 냉장고」는 편한 자세에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함이 더해지고 있다.

이렇듯 親생활 가전제품의 등장은 기존의 포화상태에 있는 가전제품을 소비자의 편리성 추구나 고정관념의 전환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업계의 노력이 돋보이는 부분이기도 하다.

넷째, 정보화사회를 지향하는 화상 정보통신시스템들의 다수 등장이다.

통신·방송 복합위성인 무궁화위성이 내년부터 시험방송 전송을 시작, MPEG(Moving Picture Expert Group)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방송, 초고속 데이터통신, 화상회의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개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공위성 발사와 동시에 본격적인 정보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보통신서비스의 일대 혁신을 예상하고 있다.

기존의 통신서비스는 음성, 문서, 데이터 등을 전송하여 정보교환을 이루었으나 여기에 화상까지 추가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동화상의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화상회의 시스템」은 1대의 PC로 통합운영하는데 음성서비스는 마이크와 스피커를 통해 송수신하고, 화상서비스는 카메라와 모니터를 통해 송수신 가능하며, 회의도중 칠판기능을 수행해주는 화이트보드 서비스와 여러 종류의 정보화일을 주고 받을 수 있어 ISDN망을 통해 완벽한 회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다.

회의실이나 전용회선 없이도 사무실의 컴퓨터에 카메라와 전화기를 갖추고 ISDN망에 접속하여 송수신이 가능한 「PC멀티 화상회의시스템」도 개발되었다.

동 시스템은 영상을 보면서 화상회의 도중에 음성통화는 물론 데이터 송수신도 가능한데 이는

기존의 각종 보드의 분산배치와는 달리 다기능 코덱보드라는 하나의 보드에 통신망 접속, 음성, 영상 보드를 통합하여 부착 일반소비자도 손쉽게 설치가 가능하다. 특히 이것은 최대 16개 지역까지 연결하여 회의를 할 수 있어 다자간 집단회의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화상회의 시스템들은 경제성으로 그 수요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수요처 역시 일반 기업체에서 관공서, 금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으로 까지 확대되고 있다. 향후에도 기대하고 있는 이유로는 현재의 전용회선 사용에서 ISDN망 구축이 완료되는 금년 연말에 가면 저렴한 사용료로 더욱 사용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반 전화 회선이나 케이블을 통하여 전송된 영상 및 음성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주는 「VOD(Video On Demand)시스템」은 지난해에 선보이면서 영화에 비중을 두었으나 이번에는 영화와 게임은 물론 홈 쇼핑이나 홈 बैं킹 등의 대화형 서비스에 역점을 두고 있다.

기존의 방송 수신에도 일대 혁신이 기대되고 있다.

우선 화질의 대폭적인 개선이다. 기존의 방송 보다는 고품질의 방송이 가능하며 16:9화면의 와이드 TV 방송서비스도 가능하게 된다.

또한 음질역시 CD수준의 고품질을 즐길 수 있다. 난시청 지역이 일시에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동화상은 물론 주식정보, 문화정보, 정치화면 등의 데이터 방송도 가능하며 아날로그 방송에서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은 일대 혁신이라 할 정도로 다양한 서비스가 예상되는데 바로 이러한 서비스는 「디지털 위성방송 수신기」를 통하여 가능하다. 동 시스템은 디지털 신호로 바꿔 위성으로 송출된 방송 프로그램을 위성중계기를 통해 송출신호를 증폭하여 재송출하면 변조된 방송신호를 수신하는 장치인데 원래의 신호로 재생하여 시청이 가능하게 하는 제품이다.

다섯째, 중소기업의 다양한 국산화 부품의 대

거 출품으로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산업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에서도 이번 전자전에 다양한 국산화 부품들을 출품하였다.

눈에 띄이는 제품들은 먼저 자동차 관련 제품들로 도난경보기능의 자동차 도난경보기, 카오디오기기, 휴대폰 주변기기 등이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실생활에서 소비자와 직결되고 있는 자동차 도난방지와 오디오기기 절도를 막아주는 「자동차 도난경보기」가 다양하게 출품되고 있다.

또 하나의 제품군은 최근 수요 폭증세를 보이고 있는 휴대폰의 차량장착 주변기기인 「핸즈프리 키트」도 여러 기종에 맞게 다양하게 출품되어 휴대폰 소유자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 오디오기기로는 「카 CD오토체인저 데크메카니즘」이 새로 개발되어 출품되었다.

동 제품은 CD 6장이 동시에 자동전환 선택이 가능한 것으로 그동안 수입에 의존하였으나 국내 업계에서 1년여의 개발기간을 거쳐 기존 수입품에 비해 10mm정도 슬림화가 되어 기술적 개가는 물론 가격도 하락되고 연간 수입대체 효과도 1억불을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FA용으로 안전작동이나 위치제어가 주목적인 자기진단 및 타이머 기능 내장형의 「포토센서」, 코드리스폰이나 FAX, 컴퓨터 등에 쓰이는 광에 의해 신호를 전달하는 광 결합소자인 「SMD 포토커플러」, 최근 수요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4배속 CD-ROM 드라이브用 「인터페이스 커넥터」가 개발되어 전원용 커넥터의 외부 고정핀을 삭제하고 PCB 밀착고정핀을 사용하여 면적축소와 생산성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 3. 수출상담 및 관심품목 동향

#### 가. 참관 바이어 동향

세계적인 경기회복과 선진공업국의 경기활성화

국가별 참관바이어 현황

(단위 : 명)

| 구 분  | '95 KES |       | '94 KES |       |
|------|---------|-------|---------|-------|
| 참여국가 | 67개국    |       | 72개국    |       |
| 1    | 미 국     | 1,065 | 미 국     | 1,101 |
| 2    | 일 본     | 517   | 일 본     | 612   |
| 3    | 홍 콩     | 437   | 홍 콩     | 463   |
| 4    | 대 만     | 326   | 대 만     | 365   |
| 5    | 독 일     | 319   | 독 일     | 300   |
| 6    | 이탈리아    | 315   | 이탈리아    | 267   |
| 7    | 싱가폴     | 249   | 싱가폴     | 241   |
| 8    | 말레이시아   | 228   | 말레이시아   | 241   |
| 9    | 태 국     | 228   | 태 국     | 235   |
| 10   | 인 도     | 224   | 인 도     | 195   |

및 국내제품의 가격/기술경쟁력 강화로 기대 이상의 활발한 상담이 이루어졌다.

지난해의 6,521명보다 다소 늘어난 67개국 6,598명이 참관하였는데, 이를 지역별로 보면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지역 바이어가 2,543명,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지역 바이어가 1,750명, 미국, 캐나다 등 북미지역 바이어가 1,180명, UAE, 터키, 이스라엘 등 중동지역 바이어가 523명, 브라질, 우루과이, 멕시코 등 중남미 지역 바이어가 301명, 호주, 뉴질랜드 등 대양주 지역 바이어가 214명, 남아공, 카메룬,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지역에서 96명 등이 참관하였다.

국가별 바이어 참관현황을 보면 주 수출시장인 미국이 작년에 이어 선두, 그 다음으로 일본바이어, 작년에 극소수에 불과하던 인도가 224명에 이르는 바이어들이 참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요 10개국 바이어 내한 현황은 위의 도표와 같다.

지역별 바이어의 관심품목 동향을 살펴보면, 북미/유럽지역은 품목 전반에 대해 관심을 보였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측기기, 카알람, SVR, FAX, 무전기, 모뎀, 코드리스

부문별 수출상담액 실적

(단위 : 천불)

| 수 출 상 담 액            |                   |     | 1,650,332 |
|----------------------|-------------------|-----|-----------|
| 가 정 용<br>(752,124)   | C                 | T V | 110,319   |
|                      | 오 디 오 (컴 포 닌 트)   |     | 200,840   |
|                      | H A (비 디 오 도 어 폰) |     | 79,080    |
|                      | 카 오 디 오 기 기       |     | 260,886   |
| 산 업 용<br>(516,875)   | 계 측 기 기           |     | 363,250   |
|                      | 컴                 | 퓨 터 | 29,314    |
|                      | S                 | V R | 31,370    |
|                      | 무                 | 전 기 | 17,908    |
| 전 자 부 품<br>(381,333) | P                 | C B | 145,844   |
|                      | 스                 | 위 치 | 78,190    |
|                      | 콘                 | 넨 서 | 55,432    |
|                      | 저                 | 항 기 | 26,321    |

폰, PCB, LCD, 스피커, 콘텐서, 무선마이크, GTV, 비디오CD, 카오디오, 비디오폰, 앰프, 오디오믹서 등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산업화에 열을 더해가고 있는 인도, 파키스탄, 남아공화국 등과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지역에서는 산업화에 필수적인 계측 정밀기기와 범용 전자부품 그리고 계절적 특성에 따른 기후 상품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나. 수출상담 현황

이번 한국전자전에서는 세계적인 경기회복과 선진국의 경기활성화와 더불어 우리제품의 경쟁력 제고 등으로 지난해의 12억 5,000만불에서 대폭 늘어난 16억 5,000만불을 기록 전례없는 대성황을 기록하였다.

반면 우리의 수출 주력품목이면서 극심한 수급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메모리반도체(DRAM), CPT 등은 상담은 활발하였으나 실적은 없었다.

부문별, 주요 품목별 수출상담 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연도별 전자전 수출품 동향

| 회수 | 연도   | 특   | 색 |
|----|------|---|---|
| 1  | 1969 | 단일품목 전시회로서 국내 최대규모, 외국인투자업체 반도체소자 중심의 전시, TV 및 라디오의 중점적 전시  |   |
| 2  | 1971 | TV, 라디오 및 기구부품 중심의 전시   |   |
| 3  | 1972 | Color TV 최초 전시  |   |
| 4  | 1973 | 컴퓨터 및 Color TV의 전시, 외국인업체의 대규모 출품, 국내 대기업의 신규 참여  |   |
| 5  | 1974 | 전자시계 전시, 교육용 CTR 전시, 전자제품 수입원자재 전시  |   |
| 6  | 1975 | Color TV, 민간휴대용 무전기 등 해외수요 급증품목의 중점 전시, 신모델 개발제품 (라디오, TV, 녹음기, 앰프 등)의 대량 출품, 산업용기기 출품 증대   |   |
| 7  | 1976 | 컴퓨터 국내조립품, 금전등록기, CB트랜시버의 전시  |   |
| 8  | 1977 | 태양전지용용기기, 컴퓨터용용장치, 전자식 자동교환기 및 수출유망 개발기기의 전시  |   |
| 9  | 1978 | 산업용 기기의 중점 전시, 전자의료기기 및 전자식 약기류 전시  |   |
| 10 | 1979 | 수출가능 품목 제품의 고급화, 절전형 전시   |   |
| 11 | 1980 | 반도체 및 컴퓨터 국산화 제품, 통신기기, 고신뢰성 전자제품, 고유모델 개발품목의 전시  |   |
| 12 | 1981 | 마이크로프로세서 응용 가정용 전자기기의 전시, 오디오 및 비디오 제품의 기능다양화, 반도체 및 컴퓨터개발 심화, 제품소형화 및 고가품에 주력, 부품의 원료 및 소재개발로 국산화를 향상.   |   |
| 13 | 1982 | 국내업체의 Computer 및 주변기기 전시, 통신기기 본격 출품, 가전기기에 Microprocessor 응용활발. 전자부품의 정밀·고품질화 추세, 외국업체의 설비 및 전자교환기   |   |
| 14 | 1983 | 16Bit Computer 등 컴퓨터 기종의 본격 출품, 국산화의 급진전, 염가 기종 출현, 광통신기기 및 DAD 등 전시, 초소형 VTR 개발 전시, 정밀부품의 경박단소 추세, Robot기기의 본격 전시.   |   |
| 15 | 1984 | Computer 및 주변기기의 고성능화, 응용다양화, 고도화된 산업용기기의 신개발, VLSI급 반도체 위성방송 통신장치 등 수출유망 New Media 기기 및 '86년, '88년 Olympic 유망제품 전시   |   |
| 16 | 1985 | 다기능컴퓨터 및 대용량의 보조기억장치 등의 대거 출품, 고집적도 반도체 초정밀부품·소재개발. Olympic유망 상품개발 전시, 수출유망 고기능 가전기기, Laser 전자기기, OA, FA, HA 관련기기   |   |
| 17 | 1986 | 세계 최초의 4mm 초소형 VTR-Camera+TV일체형, CD 및 CDP, 벽걸이 전자렌지, HA(Home Automation) 제품의 Network소개, 32Bit 소형컴퓨터, 초음파 의료기기(단층촬영기), 광통신 및 계측기기, 무인창고관리시스템, 부품자동진입장치 개발, 국민보급형 PC 40만원대 개발                     |   |
| 18 | 1987 | 대용량컴퓨터, 최신 첨단통신기기 및 의료용 기기 등 산업용 전자기기, 음성합성 VTR, DAT 등 고급 다양화된 가전제품 및 올림픽 유망상품, 1M DRAM, 복합회로 다층기판 등 경박단소화된 Chip형 부품소재, 최신 자동화 산업설비 및 정밀계측기기, 고급 첨단부품 및 소재                                      |   |
| 19 | 1988 |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개발 확대, 주변기기 확충, 산업용기기의 비중확대, 자기기록용 산화철 분말 개발 CDP, Car Audio기기의 고급화, 고속 팩시밀리, 디지털 계측기기·시험기기   |   |
| 20 | 1989 |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공장, 사무, 가전자동화시스템, 고집적 반도체, 고성능 컴퓨터 등 2000년대를 주도할 첨단 전자제품, 고선명 대형TV, 캠코더, 디지털 오디오 등 뉴미디어 제품, 전파방해 검사장비 등 초정밀 계측기기   |   |
| 21 | 1990 | PC의 고성능화 및 초소형화, 컴퓨터를 이용한 가사자동화시스템 및 뉴미디어 기기, 영상기기의 다기능화 (문자다중) 및 고해상화(S-VHS VCR, 8mm캠코더), 광전자제품(광자기디스크, 포토, 커피러, 수광 및 발광소자, 포토 인터렙터), 혁신적 소프트웨어제품(지문인식시스템), 자동화 및 고정질 SMC 제품 등                 |   |
| 22 | 1991 | PC의 초소형화 및 고기능화(노트북형 PC 및 팜톱, 펜으로 입력하는 PC), 뉴미디어의 총아 CATV, 광통신 시스템, 광케이블LAN, 음성인식 TV, VTR, HA의 홈 서비스 로봇트-온도, 습도, 침입, 추락방지, 경보감지, 인공지능 또는 뉴로퍼지체용 가전제품, 16M DRAM 전자과 장애대책 부품, 자동계측제어장치 및 공장자동화 기기 |   |
| 23 | 1992 | 와이드화면TV(16:9), 양면 재생 LDP, DCC, CD-I, 물결레 청소기, 김치 냉장고, 국산간이 쌍방향 CATV, 공장자동화 시스템, 노트북 및 펜 압력 PC, 슈퍼VGA 모니터, 64M DRAM 시작품, 12인치 TFT형 LCD, 슈퍼 Flat Display, HDTV용 DY/FBT 자동초음파 자동용접기, 정밀계측제어장치      |   |

| 회수 | 연도   | 특  | 색 |
|----|------|--|---|
| 24 | 1993 | HDTV, HDVCR, HD Monitor, CD-I 등 멀티미디어기기, 64M DRAM, 32M Mask ROM, 10.4" TFT LCD, 5" STN LCD, Green PC, Green HDD, CFC, 대체냉매 냉장고, 팜톱PC, G4팩시밀리, 물걸레청소기, 김장독냉장고, S-VGA보드, 수중스피커, FAX 모뎀카드, 디지털 RF계측기기, 특수반도체, 고성능 건전지 등   |   |
| 25 | 1994 | HDTV, CD-1, CD비전, VOD, 신냉매 냉장고, 그린TV, 태양전지 에어컨시스템, 초소형 휴대폰, 고해상도 레이저, 빔 프린터, 홈팩시밀리, 한국형 식기세척 건조기, 숯불구이 전자렌지, 김치 숙성 냉장고, 홈먼지제거 청소기, 자동차용 항법 장치, 첨단기술 세탁기, Set-Top Box, 256M DRAM, TFT-LCD 광센서, SMD소켓, 캠코더용 CCD, 페이지용 모터, PTC써미스터, HDTV브라운관 등                        |   |
| 26 | 1995 | DVD, PDP-TV, 와이드 TV, 일체형 홈PC, 음성인식 멀티미디어 PC, 256M DRAM, 대형 TFT-LCD, 휴대폰, 노트북 PC, 전화예약 녹화 VCR, 자연음오디오, 자연음 선풍기, 복합기능 세탁기, 신발상 오디오 및 냉장고, 화상회의시스템, PC디지털 회의시스템, VOD시스템, 디지털 위성방송수신기, 자동차 종합정보시스템, 자동차 도난 경보기, 카CD오토체인저테크메카니즘, 휴대폰 핸드프리카트, 포토센서, SMD 포토커플러, 인터페이스 커넥터 |   |

제26회 한국전자전람회 경품 당첨자 현황

| 성 명   | 품목 및 협찬사         |
|-------|------------------|
| 곽 희 준 | 미니카세트(대우전자)      |
| 김 경 철 | 전자게임기(현대전자)      |
| 정 진 현 | CD카세트(삼성전자)      |
| 박 미 다 | 멀티플레이어(LG전자)     |
| 김 윤 영 | 전자레인지(대우전자)      |
| 박 영 근 | CD비전(현대전자)       |
| 김 준 태 | 칼라TV 25" (LG전자)  |
| 정 성 훈 | 냉장고 500 l (삼성전자) |
| 김 진 근 | 멀티플레이어(LG전자)     |
| 김 혁   | 전자게임기(현대전자)      |
| 김 나 균 | 전자레인지(삼성전자)      |
| 한 민 자 | CD비전(현대전자)       |
| 김 규 수 | 세탁기10kg(삼성전자)    |
| 정 재 욱 | 냉장고 500 l (대우전자) |
| 이 상 훈 | 슬림에어콘(삼성전자)      |
| 이 준 한 | 멀티플레이어(LG전자)     |
| 김 학 성 | 전자게임기(현대전자)      |
| 이 정 자 | 진공청소기(LG전자)      |
| 이 석 재 | CD비전(현대전자)       |
| 최 영 일 | 전자레인지(LG전자)      |
| 유 창 근 | 비디오카메라(삼성전자)     |
| 정 기 섭 | 세탁기9.9kg(대우전자)   |

| 성 명   | 품목 및 협찬사        |
|-------|-----------------|
| 전 덕 자 | 오디오(카세트) (대우전자) |
| 이 강 현 | 멀티플레이어(LG전자)    |
| 이 창 모 | V.T.R(삼성전자)     |
| 김 형 진 | 전자게임기(현대전자)     |
| 김 현 정 | V.T.R(대우전자)     |
| 김 병 수 | 세탁기 10kg(LG전자)  |
| 이 창 훈 | CD비전(현대전자)      |
| 나 창 수 | 전자게임기(현대전자)     |
| 하 성 언 | 멀티플레이어(LG전자)    |
| 김 원 문 | 진공청소기(대우전자)     |
| 강 길 윤 | 카세트(LG전자)       |
| 맹 용 주 | 오디오셋트(삼성전자)     |
| 박 재 용 | CD비전(현대전자)      |
| 윤 희 곤 | 칼라TV(대우전자)      |
| 박 병 조 | 카세트(대우전자)       |
| 박 정 자 | 멀티플레이어(LG전자)    |
| 전 찬 홍 | 카메라(대우전자)       |
| 이 정 순 | 진공청소기(삼성전자)     |
| 이 윤 재 | 전자게임기(현대전자)     |
| 박 덕 원 | V.T.R(LG전자)     |
| 장 기 창 | CD비전(현대전자)      |
| 오 수 진 | 칼라TV 25" (삼성전자) |